



소소미술관은 지역 작가, 주민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미술관이다. 개관 기념으로 열리고 있는 '너에게, 소소한 이야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70명의 열정이 담긴 소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미소가 절로... 못난이 조각들

은암미술관 내달 1일까지 김판삼 조각전



'엄마는 슈퍼맨'

볼록 튀어나온 배, 통통한 얼굴, 삐죽 나온 입. 못생겨도 너무 못생긴 조각들. 그런데 미소가 지어지는 이유는 뭘까.

은암미술관은 25일부터 12월1일까지 '못난이' 연작을 선보이고 있는 조각가 김판삼씨를 초대해 '못생긴 건 무죄-못난이 미학'전을 연다. 김씨의 다섯 번째 개인전이다.

김씨의 작품 '못난이'들은 일상생활 혹은 과거의 추억들을 해석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작품으로 위안을 주고 싶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다.

특히 못난이 작품 이면에서는 모성애 등 여성들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다.

"못난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김씨의 말이다.

군산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을 나온 김씨는 홍콩 बैं크 아트페어 등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문화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전시 오픈은 25일 오후 5시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모텔의 대변신... 메마른 농촌에 문화 향기 솔솔

문화가 흐르는 공간

18 화순 소소미술관

10여년 비어있던 4층 건물 구입 리모델링 전시실·카페에 작가들 입주 레지던시 갖춰 내달 14일까지 지역작가 70명 개관 기념전

최근 방치된 건물에 문화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 미술관, 갤러리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공간들은 주변 지역의 분위기를 물론 인근 주민들의 삶도 함께 바꿔놓는다.

지난 8월 화순 도곡면에 개관한 '소소미술관'도 이런 사례중 하나다. 이곳 주인인 김봉석(56·광주대 산업기술경영학부 교수) 관장이 오래된 모텔을 사들여 미술을 전공했던 아내(56)와 함께 손수 미술관으로 꾸몄다.

지난 주말 광주대 뒷길을 지나 도곡면 방면으

로 차를 몰아 소소미술관을 찾아갔다. 지나가는 가을을 보면서 20여 분 달리자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미술관 건물이 보였다. 아담하게 생긴 작은 울타리를 따라 미술관으로 들어서자 돌들을 차곡차곡 쌓은 듯, 불인듯한 건물 외벽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200평 부지에 세워진 소소미술관은 전체 4층 건물로 1층에는 전시실과 카페가 함께 있는 형태다. 2층에는 35평 규모로 숙식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과 교육실이 갖춰져 있고, 3층에도 레지던시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수장고가 있다. 또 옥상인 5층은 앞으로 문화체험공간으로 새로 꾸밀 예정이다.

인상적인 공간은 2층에 있는 레지던시였다. 작가들에게 작은 작업 공간 하나만 내어주는 기존 레지던시들과 달리 이곳에서는 실제 작가들이 입주해 생활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꾸며져 있었다. 특히 공간 자체가 넓어서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향후에는 오픈 스튜디오 등을 통해 작가의 삶과 작업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정강임씨와 조대원씨가 입주해 있고, 향후 3~4명의 작가들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김 관장이 미술관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지역 미술인들과의 교류 때문이었다. 조대부고를 졸업하고 타지역에서 생활하던 그는 지난 2000년 30여 년 만에 다시 고향 광주를 찾았다. 광주에서 식

당을 운영하던 그는 동장인 김해성 작가 등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되면서 조근호, 박수만, 장현우, 고근호 작가들과 친분을 쌓아갔다. 그러면서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역 미술인들의 전시회를 찾아다니면서 작품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작품이 150여 점에 달한다.

지난 2011년 10년 동안 비어있던 모텔을 구입할 당시만 해도 미술관은 생각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도 미술관은 힘들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건물의 활용방안을 고민하다가 아내와 함께 미술관을 해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관장 스스로도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장현우, 고근호, 조근호, 김해성, 김영태 작가 등과 함께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큐레이터를 영입해 미술관의 기본틀을 잡자 탄력이 붙었다. 기획 등 전문적인 영역은 운영위원회와 큐레이터에 맡기고 김 관장은 행정 등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작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김 관장의 생각이다. 크고, 거창한 것도 좋지만 작고, 소박한 것들로 미술관을 만들자며 이름도 '소소미술관'으로 지었다. 때문에 다음달 중순부터는 화순 도곡 죽청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한해 동안 준비한 유희, 드로잉, 도예 등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과 연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개관기념으로 '너에게, 소소한 이야기'(12월14일까지)전이 열리고 있다. 강남구, 강요상, 고마음, 문형선, 박구환, 오건규, 이준립 등 지역의 젊은 작가와 중견 작가 70여 명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1-375-1995.

/글·사진=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광주시립국극단-대구시립국극단 합작

창극 '춘향' 27~28일 광주 무대

판소리 '춘향전'은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판소리 춘향전을 재해석한 창극 '춘향' 공연이 오는 27~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장영한

이미소

광주시립국극단(예술감독 윤진철)과 대구시립국극단(상임지휘자 유경조)이 함께 무대에 올리는 창극 '춘향'은 국토교통부 내륙권 발전 시범 사업 가운데 대구-광주 연계 협력권 특화 공연 공동제작 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양 단체는 지난해 '봉사 심학규'를 함께 제작했다. 광주 공연 전인 20~21일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기존 전통 창극을 기본으로 윤진철 예술감독이 작정한 '춘향'은 광주시립국극단이 극을 풀어나가며 대구시립국극단이 웅장한 국악 관현악 연주와 무용 등을 맡았다. 작품은 1장 '춘향과 몽룡의 만남'을 시작으로 '백년가약', '신관사도 변학도', '전라도서 이몽룡과 옥중 춘향', '어사출두' 등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 춘향과 변학도는 광주시립국극단원인 이미소와 장영한이 맡았으며 이도령 역으로는 임현민(남원시립국극단 수석 단원)씨가 출연한다.

창극 '춘향'은 오는 12월2일 경기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도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될 예정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526-03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래된 모텔 건물을 활용한 소소미술관 전경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죽지세 **맛집** 5회 연속 선정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